

각 연도별로 평가한 기술효율성이 ‘1’인 딸기 프론티어 농가의 기술효율성은 소폭 증가하였고, 순수기술효율성은 감소하였다. 딸기 전체 농가의 기술효율성은 감소했지만, 프론티어 농가의 기술효율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는 프론티어 농가와 일반 농가 사이의 기술 격차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3-4-13> 딸기 선도농가의 기술효율성 변동 추이

구분	딸기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2001	0.967	1.000	0.972
2002	0.951	0.952	0.951
2003	0.966	1.000	0.980
2004	0.547	0.661	0.557
2005	0.540	0.659	0.546
2006	0.492	0.636	0.498
2007	0.677	0.794	0.709
2008	0.722	0.795	0.733
2009	0.756	0.828	0.767
2010	0.940	0.963	0.963
2011	0.934	0.953	0.939
2012	0.850	0.886	0.878
2013	0.789	0.871	0.819
평균	0.779	0.846	0.793
연평균 증감율	0.2%	-0.1%	0.6%

주 : 각 연도별 표본을 대상으로 기술효율성을 계측하고, 연도별 기술효율성이 1인 효율적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효율성을 계측

나. 토마토 농가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

토마토 농가의 2001-2013년까지의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 분석 결과 총효율성은 연평균3.2% 감소하여 2001년 0.394에서 2013년 0.251로 줄어들었다. 이는 규모효율성은 소폭 증가했지만, 배분효율성이 연평균 2.3% 감소했기 때문이다. 각 효율성의 평균 변화율은 규모효율성 0.2%, 총효율성 -3.2%, 배분효율성 -2.3%, 기술효율성 -1.0%, 순수기술효율성 -1.0%, 이윤효율성 -2.0%이다.

<표 3-4-14> 토마토 재배농가의 연도별 경영효율성 변동 추이

구분	비용효율성					이윤효율성
	총효율성	배분효율성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2001	0.394	0.680	0.577	0.656	0.857	0.456
2002	0.405	0.670	0.605	0.673	0.905	0.460
2003	0.408	0.674	0.606	0.667	0.906	0.468
2004	0.385	0.669	0.573	0.636	0.902	0.419
2005	0.368	0.639	0.575	0.634	0.908	0.407
2006	0.461	0.707	0.650	0.714	0.911	0.524
2007	0.374	0.649	0.572	0.628	0.913	0.421
2008	0.356	0.608	0.583	0.630	0.925	0.396
2009	0.339	0.598	0.566	0.625	0.909	0.392
2010	0.293	0.575	0.510	0.571	0.897	0.345